

## 법학관 헌법연구소장 이토 마코토의 메시지

일본국 헌법 제 13 조는 "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"라고 규정하며, 생명,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입법 기타 국정(国政)상 최대한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는 국민은 어느 누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진 구체적인 개인으로서 존중받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일본국 헌법은 개개인의 개인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, 이에 기반하여 국민 주권,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일본국 헌법의 이념을 널리 사회에 알리기 위하여, 2002 년 11 월 3 일 법학관 헌법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.

저희 연구소는 비정부조직 연구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하면서, 일본 국민 및 여러 해외의 외국인들에게 일본국 헌법에 대한 연구 성과, 일본국 헌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.

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‘개인의 존중’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진다면 세계의 분쟁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.

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연구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싶습니다.

법학관 헌법연구소장 이토 마코토

## 법학관 헌법연구소의 주요 사업

1. 헌법에 대한 연구
2. 헌법에 대한 각종 정보발신
3. 정기 간행물 발행
4. 기타 헌법과 그 이념의 보급사업

## 법학관 헌법연구소

e-mail : info@jicl.jp

〒150-0031

도쿄도 시부야구 사쿠라가오카초 17-5